

■ 일본 경제산업성·환경성, 에너지 관련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시

- (경제산업성) 경제산업성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4조4천억 엔을 편성하였으며, 이 중 녹색전환(green transformation, GX) 부문에 5천억 엔을 편성함.¹⁾
-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분산형 에너지 리소스 도입 지원 사업: 127억 엔
 - 가정 및 기업의 수요반응(DR) 촉진 및 전력 데이터 활용 촉진, ESS 도입 지원, 광역적 수급 조정에 관련된 계통 정비의 조사 검토 지원을 실시하여 전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자가소비 촉진을 유도하여 가정 및 기업의 에너지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임.
 - 중소수력발전 관련 지자체 주도형 안전 창출 지원 사업: 20억 엔
 - 중소수력발전의 조기 사업화 및 개발사업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유량 조사 및 지형 측정, 사업성평가 등을 지원할 것임. 또한, 전국의 중소수력발전의 미개발 지점을 조사할 것임.
 - 지열자원개발사업: 50억 엔
 - 일본 사업자의 지열 자원 개발 유망 지역의 지표 조사 및 시추 조사를 지원할 것임. 또한, 차세대 지열 기술의 조기 사업화를 위한 민간협의회를 설치하여, 실증 및 사업화 관련 조사를 지원할 것임.
 - 석유·천연가스 에너지 안정공급 실현 사업: 110억 엔
 -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리스크머니 공급 등을 통해 일본 기업의 석유·천연가스 지분 확보 등을 촉진할 것임.
 - 첨단 CCS지원 사업: 320억 엔
 - CCS사업의 보급·확대에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2030년부터 사업 개시를 목표로 한 사업자 주도의 '선진적 CCS사업'을 선정하여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임. CO₂ 회수원, 수송 방법, CO₂ 저장 지역의 조합이 상이한 프로젝트의 지원을 실시하고 다양한 CCS 사업 모델을 확립할 것임.
- 환경성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4,740억 엔을 편성하였으며, 이는 전년 대비 1,076억 엔 증가한 수준임. 또한, 국토교통성은 2조 2,478억 엔을, 문부과학성은 9,067억 엔을 편성함.²⁾
- (환경성) 태양광패널 폐기량은 2040년 연간 최대 5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. 이에 환경성은 태양광패널 리사이클을 위한 설비 도입 지원 및 플라스틱 자원 순환 대응에 17억 엔을 편성함.
 - (국토교통성)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효율 주택 지원에 2,250억 엔을 편성하였음. 또한, GX경제이행채 500억 엔을 활용하여 GX지향형 주택에 대한 신규 지원을 실시할 것이며, 1가구 당 지원액은 약 160만 엔으로 약 3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것임. 한편, 인프라 분야의 탈탄소화 관련 시책에 대해 214억 엔을 편성하였으며,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기지항만 정비

1) 経済産業省, “経済産業省関係令和6年度補正予算案の概要”, 2024.11., 電気新聞, 2024.12.2.

2) 電気新聞, 2024.12.2.

- 및 도로 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추진할 것임.
- (문부과학성) 핵융합 에너지 실현을 위한 연구 개발 추진에 94억 엔을 편성하였으며, 이 중 국제 열핵융합 실험로 'ITER'의 주요 기기 제작에 51억 엔, 원형로 실현을 위한 기반 정비에 3억 엔을 편성하였음. 또한,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(JAEA)의 연구 시설 고도화에 241억 엔을, 신규 실험연구로 개발 및 정비에 9억 엔을 편성함.